

보도시점 (온라인) 2024. 10. 6.(일)12:00  
(지 면) 2024. 10. 7.(월) 조간

#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한 번에 신청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다양한 문화공연 즐겨요

-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맘 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선정
- ‘임산부의 날’(10.10.), ‘문화의 날’(10.19.)을 맞아 임신·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와 청년·취약계층 대상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소개

##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B씨는 얼마 전 늦둥이를 임신하게 됐다. 십수 년 만에 다시 출산 준비를 하게 된 B씨는 정부 지원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복잡할 것 같아 걱정이 됐다. 그러다 다른 예비 엄마를 통해 “이제는 온라인으로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마침 필요한 서류가 있어 ‘정부24’ 앱을 들어가 보니 ‘맘편한 임신’ 신청란이 있었고, 신청을 하니 예전엔 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받았던 산모 수첩과 임산부 주차증, 엽산제와 철분제도 택배로 편하게 받을 수 있었다.

## # 청년문화예술패스

올해 대학 새대기가 된 A씨는 뮤지컬에 관심이 많아 공연을 보러 가고 싶지만 관람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무료 공연 정보가 있는 예매 대행 누리집을 둘러보다, 우연히 ‘청년문화예술패스’ 광고를 보게 됐다. 15만 원의 정부 지원금으로 뮤지컬은 물론 클래식 연주회, 미술 전시회 등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마침 신청 대상(2005년생)에 해당 되어 곧바로 신청할 수 있었다. 발급 완료 뒤 예매 사이트에 충전된 포인트를 보고 A씨는 어떤 공연을 볼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문화의 날’(10월 19일)을 맞아 ‘임신·출산’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4건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 10월 추천 공공서비스 4건은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 ▲문화누리카드(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문화예술패스(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다.

-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 먼저,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신청, ▲엽산·철분제 지원, ▲고속열차 할인(KTX:특실 업그레이드 및 일반석 40% 할인, SRT: 특실·일반석 30% 할인) 등 전국 공통 서비스부터 지자체 서비스\*까지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 \* 임신축하용품, 임신부 주차증, 산모교실 등을 제공하며 지자체마다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 원스톱 서비스 시행 전에는 각각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 개별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이나 주민센터, 보건소 등 온·오프라인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졌다.
  -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메뉴 → 맘편한 임신 항목 → 지원 항목 선택
- 아기의 희귀질환과 엄마의 임신 질환을 보장하는 무료 보험인 ‘대한민국 엄마보험’도 임신·출산과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서비스다.
  - 지난해 11월 우체국에서 출시한 이 보험은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17~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공익보험’이다.
    - \* 임신 22주 초과 시에는 주계약(태아)만 가입 가능
  -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100만 원,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질환(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당뇨병)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 \* 보험기간: 자녀(태아)는 계약일로부터 10년, 엄마는 분만 시 까지(최대 10개월)
  - 신청은 가까운 우체국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및 앱(잇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다.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문화누리카드는 대상자에게 연 13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데 전국 3만 1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영화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배구, 농구) 관람료 4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문화누리 누리집 및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발급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다.  
※ 단, 주민센터 발급은 11월 29일(금) 18시까지임
- 올해 성인(2005년생)이 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도 눈여겨 볼 서비스다.
  -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공연·전시 등에 드는 관람비를 지원(최대 연 15만 원)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문화예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됐다.
  - 신청은 소득과 관계없이 2005년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협력 예매처(인터파크, yes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전시·연극·뮤지컬·클래식 등 예술공연을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다.
-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임산부, 청년,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 누구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정, 소확행’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	책임자	과 장	고웅조 (044-205-2201)
		담당자	사무관	김용관 (044-205-2210)
			사무관	김상호 (044-205-2217)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주요내용**

서비스명	주요 내용
<p><b>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b> (행안부, 복지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요)</b>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및 철분·엽산제 지원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li> <li>○ <b>(지원 내용)</b> ①<b>전국 공통 서비스</b>(국민행복카드, KTX·SRT 임신부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에너지바우처 등), ②<b>지자체 개별 서비스</b>(임신축하선물, 임신부 주차증 등)</li> <li>○ <b>(이용 방법)</b> 온라인은 정부24를 통해, 오프라인은 근처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li> </ul>
<p><b>대한민국 엄마보험</b> (우정사업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요)</b> 아기의 희귀질환을 보장하고 엄마의 임신 질병을 무료로 보장하는 공익보험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신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3無 보험' (無 보험료·심사·갱신절차)이 출시(23.11.24.)되었음</li> <li>○ <b>(지원 내용)</b> 주요 보장내용은 질병청에서 지정한 1,284개의 신생아 희귀질환(크론, 모야모야, 비폐쇄성비대성심근병증 등)으로 진단 시 진단비 100만 원, 임신부의 경우 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당뇨병 등에 각각 10, 5,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 희귀질환 진단보험금 등 각종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 한하여 지급</li> <li>○ <b>(가입 방법)</b> 우체국 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및 모바일앱(잇다 보험) 등 온라인과 우체국 창구에서도 가입 가능</li> </ul>
<p><b>문화누리카드</b>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요)</b>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개념으로 연 13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전국 3만 1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음</li> <li>○ <b>(이용 혜택)</b>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40% 할인,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li> <li>○ <b>(이용 방법)</b> 주민센터 방문, 문화누리 누리집 및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화(1544-3412)로도 가능함. 2023년 발급받은 자는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매년 1월 자동으로 충전됨 ※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온라인), 주민센터 발급은 11월 29일(금) 18시까지</li> </ul>
<p><b>청년 문화예술 패스</b>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요)</b> 올해 성인이 된 전국의 2005년생(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과 전시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li> <li>○ <b>(이용 혜택)</b>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등 인터넷 예매 사이트(인터파크, 예스24)와 앱을 통해 예약 가능한 모든 공연과 전시 예매 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음</li> <li>○ <b>(이용 방법)</b> 민간 모바일 예매 사이트 및 앱인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10만 원이 포인트로 지급되고, 지자체 일정에 따라 추가 5만 원 포인트가 지급됨 ※ 현재 75% 발급,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li> </ul>